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UNTIL FRIDAY NIGHT

가제 : 금요일 밤부터 우리는

저자 : Abbi Glines

출판사: Simon Pulse

발행일: 2015년 8월 25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인기 절정 미식축구 선수와 트라우마로 입을 닫은 소녀, 어느 금요일 밤 시작된 둘의 운명적 만남

귀여운 남학생들과 픽업 트럭이 가득한 미국 남부의 어느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위로하며 성장해가는 두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가 펼쳐진다. 작가가 총 세 편으로 계획한 YA 로맨스 성장 소설 시리즈 중 첫 번째인 이 소설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남모름 아픔을 지닌 남학생과 끔찍한 사고 후 말문을 닫아버린 여학생이 우연히 만나 절대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던 내면의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이 그려진다.

웨스트 애쉬비는 로튼 고등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절정인 남학생이다. 학교 미식축구 팀이 주 전체 경기에서 우승하도록 이끈 장본인이자, 빼어난 외모 덕분에 늘 여자들이 줄을 설 정도다. 그러나 학교에서 볼 수 있는 그 화려한 모습과 달리, 웨스트의 집과 마음 속에는 묵직한 슬픔이 늘 깔려 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암으로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는 없고, 점점 죽어가는 아버지를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는 무기력한 상황은 웨스트를 점점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 혼자 감당하고 꺾꺾 누르기엔 그 아픔이 견딜 수 없게 커져가자 웨스트는 아버지 이야기를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어 진다. 그리고 어느 금요일 밤, 경기가 끝난 후 열린 파티에서 마침내 한 소녀를 만난다. 그 소녀라면 자신의 고통을 그 누구에게든 장난 삼아 가볍게 옮기거나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확신한 웨스트는 그녀에게 마음에 담아둔 슬픔과 아픔을 다 털어놓는다.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가 돌아온다. 그저 자신의 괴로움을 덜고 위안을 얻기 위해 시작한 웨스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그 낯선 소녀가, 담담히 입을 열고 더 크고 무거운 고통을 털어놓은 것이다. 웨스트가 버거워하던 아픔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훨씬 더 깊은 비극이었다.

병으로 죽어가는 아버지, 살해당한 엄마, 너무 무거운 아픔을 함께 치유해가는 두 남녀의 이야기

웨스트가 만난 소녀 매기는 2년 전, 삶이 전부 다 무너져버렸다. 아버지가 엄마의 목숨을 빼앗아 버린 그 날, 매기의 인생도 멈춰 버렸다. 그리고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진술한 것을 마지막으로, 매기는 세상과 벽을 쌓고 입을 닫아버렸다. 그 이후 누구와도 한 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고, 이모 집이 있는 로튼으로 이사를 와서도 여전히 말 없이, 슬픔과 아픔을 꽂꽂 묻어버리고 그림자처럼 살아왔다.

예상치 못했던 매기의 반응과 갑작스러운 고백을 들으며, 웨스트는 그 동안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진하고 강렬한 유대감을 느낀다. 같은 미식축구팀 선수이자 매기의 사촌이 웨스트가 매기에게 느끼는 감정을 눈치 채고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매기를 절대 놓을 수 없다. 단순히 자신의 슬픔을 공유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어둠 속에 살아가는 매기를 밝은 세상으로 끌어내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매기 역시 크나큰 고통을 혼자 끌어 안고 세상과 동떨어져 살기 위해 갖은 애를 써 왔지만, 자신도 모르게 웨스트에게 이야기를 털어 놓은 후부터 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아무 것도 아닌 자신에게 절실히 도움을 구하는 웨스트를 보면서 놀랍게도 마음이 치유되는 것도 느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관계로 발전한다.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공감과 유대감, 우정과 사랑의 치유력과 조금씩 성장해가는 두 사람의 아픈 성장 과정을 진지하게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애비 글린스(Abbi Glines)는 『Rosemary Beach』, 『Field Party』, 『Sea Breeze』, 『Vincent Boys』, 『Existence』 시리즈 등 뉴욕타임스, USA 투데이, 월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 소설을 다수 발표했다.

제목 : THE 13TH CONTINUUM

가제 : 제 13호 연속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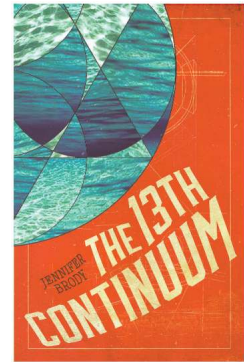
저자 : Jennifer Brody

출판사: Turner

발행일: 2016년 4월 19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지구의 종말이 찾아온 날, 선택된 사람들만 싣고 해양과 우주로 날아간 13개의 ‘연속체’

하버드 대학교의 디비누스 교수는 평생을 ‘연속체’ 연구에 바치면서도 자신의 연구 성과를 확인하거나 쓸 일이 절대 없기만을 기도했다. 그의 연구는 지구에 종말이 올 경우, 다시 이 땅에 인간의 서식지를 마련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을 때까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일종의 임시 지구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발 오지 않길 바라던 종말의 조짐은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마침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날이 오고야 말았다. 그와 다른 학자들이 백악관과 연계해 연구하고 추진해 온 비상 대피 계획을 실행해야만 하는 날이 온 것이다.

대통령의 딸 사리는 한밤 중에 귀청을 찢는 경고음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1년째 백악관 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은 귀찮은 보안 시스템일 거라 생각했지만, 복도를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의 얼굴엔 어린 사리가 보기에조차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잠이 덜 깨 정신 없던 사리가 가장 좋아하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 간 곳은 아빠, 엄마, 언니까지 이미 올라타고 있는 헬리콥터. 그런데 헬리콥터에 올라선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 동안 어디를 가든 늘 함께 다녔던 할머니만 남긴 채 문이 닫혀버린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향치는 사리에게, 아빠는 이상한 말을 했다. “할머니는 선택되지 않았단다.” 사리는 충격에 빠지고, 아빠는 디비누스 교수와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나누더니 무언가의 실행을 지시한다. 사리는 영문도 모른 채 가족들을 따라 해군 기지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잠수정 1호’라고 커다랗게 적힌 배에 오른다. 배 앞에 몰려든 수많은 인파들,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은 긴 여정을 거쳐 ‘제 13호 연속체’에 몸을 싣는다.

종말이 눈앞에 다가온 그 날, 디비누스 교수가 개발한 열세 척의 연속체에는 오직 선택 받은 사람들만이 나누어 타고 지구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기만을 기다리며 바다 깊은 곳으로, 또는 우주로 보내졌다. 그로부터 1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제 13호 연속체에서 마침내 사건이 시작된다. 바다 깊숙한 곳, 해구 깊이 묻혀 있던 13호 연속체에는 많은 생명이 살아 남았지만 삶은 절대 희망적이지 않았다. 그곳에서의 삶을 암흑기로 만들어버린 악랄한 독재자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억압 속에서 짓눌려 살아가던 소녀 마이라 잭슨은 어느 날, 놀라운 정보를 알게 된다. 13호 연속체에 남아 있는 산소가 겨우 8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양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었

다.

연속체에 찾아온 또 다른 종말을 피해 지구로 돌아가려는 젊은이들, 그들이 풀어야 할 미스터리

이대로 있다간 답답한 연속체 안에서 삶이 그대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걸 깨달은 마이라는 엄청난 일을 감행한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은밀히 전해지는 전설의 장치, ‘비콘’을 수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연속체가 처음 가동되기 전, 즉 종말이 오기 전에 제작되었다고 전해지는 비콘은 연속체를 수면 위로 돌려보낼 유일한 희망이다. 다시 산소를 얻고 삶을 이어가려면 그 방법 밖에 없다고 판단한 마이라는 종말 전의 것이라면 무엇이든 흔적도 없이 제거하는데 혈안이 된 독재자의 눈을 피해 위험한 수색을 이어간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다른 연속체에 살고 있는 군인과 통신을 하게 되고, 두 젊은이는 함께 비콘을 찾아 나선다. 그리고 두 사람 앞에 인류 전체의 미래를 바꾸어놓을지 모를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 우주와 해양, 지구까지 방대한 배경 속에서 고대 미스터리, 스릴 넘치는 전투, 독특한 인물들과 그 속에 피어나는 사랑이 펼쳐지는 SF 소설이다.

<저자 소개>

제니퍼 브로디(Jennifer Brody)는 바허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반지의 제왕’, ‘황금 나침반’ 등의 영화 제작에 참여해 왔다. 현재 LA에 거주하면서 SF, 환타지 소설 작가협회 소속으로 다양한 저서와 영화, TV 각본을 쓰고 있다.